

박주선 총선 출마... 요동치는 광주 동구

양형일·이병훈·김강열·박현·박동수 등 무소속 격전장

민주통합 무공천·투신자살 여파 등 지역민심 항방 관심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2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통합당이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투신 자살'을 이유로 무공천지역으로 선정한 광주 동구는 무소속 후보들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박주선 의원이 결국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면서 판세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계은퇴를 심사숙고했다"며 "하지만,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와 저를 돕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 동구는 박주선·양형일·이병훈·김강열·박현·박동수 등 6명의 무소속 후보와 유일한 정당 공천자인 통합진보당의 20대 김관희 후보 등 7명의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며 '정치적 탄압 및 음모' '부당한 표적수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투신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중 박주선·양형일·이병훈 등 3명은 민주당 경선에 나섰다가 중앙당의 무공천 결정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박현·박동수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출마해 표발을 파고 들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김강열 범시민 후보를 내세워 선거관을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4명 중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이장장을 제외한 3명의 후보가 모두 출마를 한 셈이다. 박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동구 선거구 현역 의원인 만큼 민주당과 기존 조직이 그대로 흡수할 경우 선거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지역정치는 분석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동구지역 전·현직 시·구위원회와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속죄의 마음으로 진심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적 책임을 떠나 인간적·도덕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와 정

하지만, 박 의원이 '투신 자살' 사건으로 흥분진민심과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 자살'사건 이후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데다 검찰이 박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선거 과정에 상대후보들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여론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 '투신 자살'로 인해 잠시 접었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조지 의견을 확대하고 있다.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며 박 현 후보는 차근차근 바닥을 다지며 민주계 후보들과 차별화된 무소속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박동수 후보는 최근 무소속 출마기 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는 20대 아줌마 돌풍을 보여주겠다고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한 광주 동구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명숙 측근 압수수색 '금품수수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민주통합당 당직자 심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심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출석하겠다는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유태명 동구청장 영장청구

선거인단 모집책 등 금품 제공 혐의

전직 동장 투신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광주시 동구 불법 선거와 관련 검찰이 유태명(68) 광주시 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구청장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중)는 22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유사기관 설치를 지시하고 금품을 제공한 유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유 청장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현직 구의회 의원과 계림1동 및 지원2동 통장, 동구여성사랑회 관계자 등에게 '비상경선대책추진위원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 청장은 대책위원 12명을 모아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1200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도록 해 경선운동을 벌이고, 투신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

(65·전 계림1동장)씨에게 선거운동에 쓰라며 4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성장사로 불러 1인당 10만원 상당 1장씩 모두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청장이 박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현직 구의회와 통장은 물론 산하단체 관계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 청장이 제공한 돈은 자기 자금으로 보인다"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건강상태와 관련 전문의들과 충분히 상의한 뒤 체포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명숙 측근 압수수색 '금품수수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민주통합당 당직자 심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심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출석하겠다는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4·11 총선 현장

김종배, 남구 불출마 선언

장병완, 5대 핵심 공약 발표

무소속 김종배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광주는 32년 전 단독 재투쟁을 해낸 자랑스런 도시"라며 "5·18 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저로서는 시민들이 5월 항쟁을 폄하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역정서를 대변 할 수 있는 정치인임을 많이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2일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장 후보가 밝힌 공약에는 ▲노후화된 송암산단을 첨단문화산업을 러스터로 조성 ▲송암산단내 국책 연구기관인 문화기술(CT)연구소 설립 ▲임암동 일대 전통발효식품러스터 조성 ▲문화교육특구에 걸맞은 문화교육시설 확충 ▲지방재정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등이 담겼다.



장 후보는 "재정이 열악한 남구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이라며 "5대 핵심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켜 '행복 남구'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박혜자 "서구발전은 오직 승리뿐"

민주통합당 박혜자 광주 서구 갑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공약을 모두 지키고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당원은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하지만, 현역의원 출신 후보도, 소위 개혁적 후보라는 분들도 모두 당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후보들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외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정치개혁과 총선승리,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큰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과 비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세로 서구 및 광주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서대석 "총선·정권교체 선봉장"

무소속 서대석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22일 "이번 4·11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대선 승리로 정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선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우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온 서대석이 당선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지역발전을 위해 젊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영입설 제기 관련

DJ 차남 김홍업씨 "그런적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전 의원의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영입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본인인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의원은 22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통민주당의 비례대표 영입설은 처음 듣는 소리며 제의를 받은 적도,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정통민주당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비례대표 영입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구 민주계를 중심으로 창당한 정통민주당은 DJ의 정신을 잇는 정당임을 강조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의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무안·신안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비례대표 영입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산점 경선패배 후보 무소속 출마 가능하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여론조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받아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가산점과 같은 평가 요소를 혼합해 결정하는 것은 '불복 금지되는 당내경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후보등록 기간에 당원이 등록해서 등록하면 등록 무효가 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가 있따르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대,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입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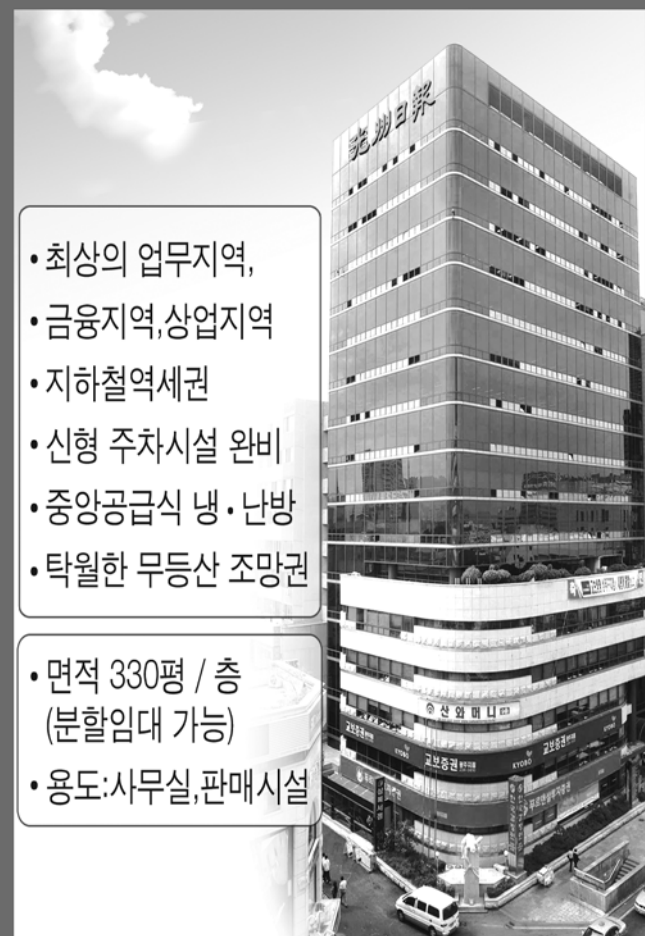
광주지사 영업사원 모집 062-606-9006
순천지점 영업사원 모집 061-722-1930

Sm 슬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장 (문채준) 010-5311-0086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사업명	(주)혜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 (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60%)
용적율	478.73%(법정: 480%)
규모	지하0층 지상9층
최고높이	55.50m
건축면적	1,435.47㎡ (434.23평)
건축연면적	11,543.18㎡ (3,491.81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승강기	부설주차장 : 대지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에스컬레이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용도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회관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개요

층별	면적	평	총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휘트니스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행 등
	최대층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